

새미래, 의원 면책특권 포기 제안

다당제 구현 등 4대 실천 목표 담은 정치개혁 방안 발표
구속 시 의원 세비 지원 금지·국고보조금제 개혁 등도
“양극단 진영논리 벗어나 포용적 중도개혁주의 견지”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특권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구체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목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러닝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조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현 △정책 정당 등이다.
이를 위한 혁신과제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및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정당 국고보조금제 전면 개혁 등을 내놨다.
특히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

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면책특권 조항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나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에 면책 특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은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지급하는 내용 등도 약속했다.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과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 및 연동형 비례제 채택, 도덕·윤리 규범 강화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양극단 진영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불모로 삼는 구태 정치를 타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를 지향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보다 철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자치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올해 도정 등 시책 방향 청취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신년설계·중점 실행과제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24일 역사적인 첫 회기(제40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월 2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모두 10회(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127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한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청의 2024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윤정훈 의원(무주)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24년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이어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용역 중단 촉구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재수사 촉구 결의안', '식치(食治)

요법 활성화 방안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동안 6개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실·국·원별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 및 민생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5건, 동의안 3건)은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제406회 임시회는 폐회된다.
국주영 의장은 첫 개회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상에 맞는 더욱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현안해결과 도민 모두가 행복할 희망의 역사를 열어나가는 데 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24일 오후 1시 50분 본회의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는데 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국립대학병원 주무부처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되나?

민주 김성주 의원, 법안 대표발의... 보건의로 체계 공공성·책임성 강화

국립대학병원의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3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학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으로 전담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병원’·‘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체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처 이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로 체계

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국립대학병원의 관리·감독, 예산, 정책 등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로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로의 부처 이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강준현·김교홍·김민석·김운덕·문정복·윤영덕·전용기·정춘숙·허중식 의원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재훈 기자

임실군의회 임시회 개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2월 2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군정 운영의 새해 밑그림을 그리는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성재 의원의 대표발의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정일운 의원의 대표발의 ‘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흠 의원의 대표발의 ‘임실군 고층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종규 의원의 대표발의 ‘임실군 농어업인 전가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장종민 의원의 대표발의 ‘임실군 임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양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성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임실군의회도 힘차게 도약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지난해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뜻깊은 순간들을 군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회기의 주요업무보고 일정은 23일, 기획감사실, 행정문화국(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24일, 행정문화국(관광치즈과, 목정호출링과, 경제교통과, 복지환경국(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26일, 복지환경국(다문화교류과, 환경보호과,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흠 의원의 대표발의 ‘임실군 고층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종규 의원의 대표발의 ‘임실군 농어업인 전가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안’, 장종민 의원의 대표발의 ‘임실군 임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양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지대 통합 시점은 2월 말 3월 초”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김종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23일 제3지대 통합 시점으로 2월 말 3월 초를 제시했다. 이날 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의 통합은 이보다 더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3지대 통합 시점을 묻는 질문에 “2월 하순이나 3월 초가 데드라인”이라며 “(‘새로운미래’와의 통합 논의는) 이

번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은 민주당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문제는 전체가 다 합쳐야 하지 않느냐는 필요성과 요구”라며 “전체 합치는 건 당장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지면 아마 돌이 합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전체가 함께

빅텐트 합당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낳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딱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3지대 연대 구상으로는 5개 신당(개혁신당·미래대연합·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한국의미래)이 하나로 통합되는 1인과 민주당계 신당, 국민의힘계 신당으로 나뉘는 2인을 소개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침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